

“주택시장, 유지·관리 패러다임 바뀌고 있다”

전남매일 CEO이카데미 원우기업 탐방

(주)미르개발 유성훈 대표

공공건물·주택 시설물유지관리 전문업체
20여년 노하우 꼼꼼한 현장점검 최우선
건물 안전진단 등 도시 재생 사업에 앞장

“주택시장이 낡은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는 것에서 유지보수·관리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잘 하면 고객들 만족감이 더 커질 것이고 또 지역사회와 신뢰를 쌓는 것이라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제1기 전남매일 CEO경제이카데미에 참여한 (주)미르개발 유성훈 대표는 자신감이 넘친다.

유 대표는 계열사로 (유)국인산업개발 등 4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금까지 축적된 노하우를 토대로 사회기반 시설물 상태를 완벽하게 점검하고 정보화 시스템을 통해 현장에 적용하는 업체로 이름 났다.

- 회사의 업무와 미래 비전에 대해 말한다면

▲의사는 환자의 병을 치료해 고통을 줄이거나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해 삶의

질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하는 일을 한다. 우리는 모든 건물을 진단하고 고쳐서 건물의 수명과 안전을 책임진다. 생활 공간의 질을 높인다. 의사와 같은 사명감이 있다. ‘건물의 의사’라고 자부한다.

특히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은 공급 위주에서 기존 건물의 보수·유지관리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정부 주택정책도 새 주택을 짓기보다 있는 것을 개선해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하고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지금 하는 일이 정부 정책에 동참하고 또 지역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1998년 광주시 운남 중구 5단지 502동 세대에 하자 보수를 하러 방문했다. 맞벌이인 세대주가 하자가 여러 가지인데 그때마다 직장을 쉬어야하니 난감하다는 하소연 듣고 아무런 대가 없이 전기, 설비 등 6가지 공정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니

매우 고마워 했다. 그때 ‘맥가이버’라는 닉네임도 얻었다. 이 일을 계기로 이일 ‘내 천직이다’라는 일념으로 시작해 20여 년의 외길을 걸어오고 있다.

-20여년의 현장경험을 쌓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갑자기 아버지께서 하신 사업이 어렵게 되어 인문계 대신 실업계 기계과에 입학했으며, 3학년 재학 중 인천 부평에 있는 공장에 취업했다. 군복무 제대 후 친구 따라 아르바이트 간 건설현장에서 타일 일을 한 것이 인생의 출발점이었다. 6년 후 20대 후반부터 집을 한 채 두 채 짓다 보니 혼자서도 할 있는 기술이 쌓였다.

이렇듯 건설현장에서 뛰었던 경험과 업무 노하우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유 대표는 회사 대표지만 현장에서 위협하고 난해한 공사는 직접 해결한다. 8년 전 순천 조례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48미터 골뚝 내화 벽돌이 일부 떨어져 나갔는데 그 순간 관리소 직원이 이 사실을 모르고 난방 보일러를 가동하는 바람에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고 한다. 가까스로 빠져나왔지만 당시를 회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고 했다.

- 회사 성장 비결이라면.

▲(질문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성실



이 되지 않고, 좌절하다 용기내어 기술로 성공하고 싶은 젊은 친구들도 있다. 또 고국에 가족을 두고 돈 벌겠다고 타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등이 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타일 강사를 초빙해 일요일이면 따로 타일 연습장을 마련해 희망자들에게 한에서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기술이 있으면 사회에 나가 얼마든지 일할 수 있겠는가.

저는 말이 대표지 지금도 직접 로프를 타고 지하 볼텍크 청소를 한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번 빛 보증을 잘못 서서 신용불량자였다. 저에 대한 편견을 걷어내고 한점 부끄럼 없이 열심히 살면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갖고 직원들과 20년 넘게 하자보수 일을 하고 있다.

-앞으로 계획은.

▲클로버란 거창한 계획은 아직 없다. 그저 오랫동안 불철주야 회사를 위해 같이 고생하고 여기까지 온 직원들과 그의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행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싶다. 미르개발의 슬로건이 ‘우리는 가족이다’다. 그들이 미르개발에 헌신한 것을 보상으로 받고 싶고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하고 싶다. 이게 나에 마지막 사명이자 도리고 의무라 생각한다. 소외된 이들과 성공의 길을 같이 가고 싶다. 이윤 창출보다는 직원들과 더불어 함께 살고 싶다.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고 싶다.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고 싶다.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고 싶다. /서미애 기자

롯데마트 ‘통큰 한 달’ 대형 할인행사

2천여 품목·천억원 물량 투입
상품 엄선 가격·품질 모두 만족

롯데마트가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10월 한달 내내 ‘통큰 한달’ 초대형 행사를 진행한다.

6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전국의 롯데마트에서 대한민국 가격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통큰 한달’ 행사를 전개한다. 이번 행사에 총 2,000여 품목, 1,000억원의 물량이 투입된다.

‘통큰 한달’은 20년 이상 대형마트를 운영해온 노하우와 역량을 총 투입해 가격과 품질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상품을 엄선해 선보이는 행사다.

최근 몇 년간 대형마트 업체의 저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생수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품의 초저가 상품을 저마다 선

보이는 등 온·오프라인의 구분 없는 경정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롯데마트는 ‘통큰 한달’ 행사를 통해 상품 경쟁력을 확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오는 16일까지 ‘통큰 한달’ 1탄을 진행한다.

롯데마트는 ‘L바이젠 맥주 (330ml x 12캔)’를 9,900원에 판매한다. 1캔당 825원 꼴로 가성비가 높은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발표주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다.

호주산 소고기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호주산 곡물비육 척아이롤(100g)’을 20% 가량 할인한 1,550원에, ‘호주산 곡물비육 부채살(100g)’을 2,880원에 판매한다. 또한 캐나다산 ‘자숙 랍스터’ 4만 마리를 준비해 행사 카드 결제시 450g 내외의 ‘자숙 랍스터’를 7,920원에 구매 가능하다.

롯데마트는 행사 기간 동안 신선 식품 이외에도 가공, 생활, 완구, 패션 잡화 분류의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초저가에 선보인다.

먼저 인기 완구 ‘빠사메카드 전 품목’을 정상이 1만9,900원에서 50% 할인해 9,900원에 판매한다. 개당 488원의 ‘아이보리’ 비누도 등장했다. 롯데마트는 ‘아이보리 비누(90g X 8입)’을 3,900원에 선보인다. 또한 중국산이 아닌 국산 건전지 ‘백셀’도 50% 할인해 ‘백셀 건전지 (각 16입, AA/AAA)’를 각 4,750원에 판매한다.

답을수록 이익인 ‘통큰케 골라담기와 균일가’ 행사도 진행한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오뚜기 소스류 17종’ 골라담기 행사로, 오뚜기 인기 소스류 17종에 한해 3개에 5,980원에 선보인다. /길용현 기자



광주농협은 최근 법무법인 세광과 ‘법률지원협약’을 체결했다. /농협광주지역본부 제공

광주농협-법무법인 세광, 법률지원 협약

광주농협(조합장 한진섭)은 최근 ‘법무법인 세광’과 법률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조합원과 고객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법률서비스에 들어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광은 광주농협의 ‘전담 법률교문’이 돼 농협조합원, 고객, 거래처 등에 대해 ▲‘연중무휴 24시간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 ▲생활법률 강의,

무료 법률상담, 법률자문, 경영컨설팅 ▲법률문제 발생시 변호사와 전문가가 변론, 자문 ▲소송수임료와 자문료 등 법률비용 할인 등 법률문제에 따른 농협조합원과 고객들의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고,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주기로 했다. /서미애 기자

■ 로또(879회)	
당첨번호	1, 4, 10, 14, 15, 35 보너스 20
등위	당첨금액
1등	3,206,361,313원
2등	41,641,057원
3등	1,236,069원
4등	50,000원
5등	5,000원

■ 연금복권(431회)		
등위	당첨번호	
1등	5조	745320
	4조	687065
2등	5조	745319
	5조	745321
	4조	687064
	4조	687066
3등	각조	113888
4등	각조	71628
5등	각조	094
6등	각조	11,03
7등	각조	3,7

M 전남매일 함께육아 캠페인

같이 하는 함께육아 가치 있는 행복육아

본 캠페인은

- 보건복지부
- 광주광역시
-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
- 인구보건복지협회광주전남지회가 함께합니다